

친환경 예술문화마당

영산강 환경·문화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16~17일 비대면 유튜브 진행
환경조각전·나눔라이딩 등 다채

페이퍼 이글루 만들기, 생태 조각전, 자전거 이동거리만큼 기부하기.

다양한 체험과 공연·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친환경 축제가 열린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박용순)과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은 16-17일 이틀간 비대면 친환경 예술문화 마당 '영산강 환경·문화'를 개최한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이번 축제는 영산강문화관이 진행해왔던 문화장터와 영산강 문화제를 잇는 행사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다.

행사는 ▲친환경 체험 ▲나눔 장터&라이딩 ▲문화예술 전시&공연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 19로 영산강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페이퍼 이글루 콘서트'는 기후위기와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종이로 만들어진 이글루를 공원이나 집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꾸민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된다. 행사 기간 중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험 키트를 배포하며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작도 선정한다.

또 시민생활환경회의와 함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문화광 필로티에서 친환경 물비누 나눔 행사(빈 용기 지참)도 진행한다.

전시는 두 개의 기획전을 만날 수 있다. 송촌공원 일대에서는 자연과 미술작품이 어우러진 '영산강 생태환경 조각전-동존의 곁'이 열리고 있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과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은 16~17일 '영산강 환경·문화'를 개최한다. 사진은 페이퍼 이글루 만들기 행사 모습.

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과 함께 진행되는 지역 사회 문화예술 융·복합 프로젝트로 박정용 교수를 비롯해 전남대에서 유학중인 중국 출신 화·설·서예 작가, 김세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영산강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김경란 개인전은 영산강문화관이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전시다. '사건의 지평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천과 과중시계, 페트병, 비즈로 구성된 설치 작품 '새움지마'를 비롯해 물과 기름, 플라스틱병이 소재가 된 '무계중심', 영상 작품 '보랏빛 세상' 등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 공연도 선보인다. 한여름 찾아가는 문화 행사 'Live 연희, 이스타그램'을 16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다양한 나눔 행사도 펼쳐진다. '아름다운 나눔 장터'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발생한 수

익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영산강보관리단, 영산강문화관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 중 일부를 16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다.

자전거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나눔 라이딩'은 자전거를 타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간별 기부금(20km 이하 5000원, 20km 이상 1만원)은 참여자 명의로 기탁되며 이동거리를 물품으로 환산해 영산강문화관에서 아름다운 가게로 후원한다.

그밖에 16일(오후 1시~4시) 라이브 방송 중 영산강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화면을 캡처 한 후 이벤트게시판에 댓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행사 관련 문의는 영산강문화관 안내데스크(061-335-0866)로 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산강문화관 전시실에서 만나는 김경란 작 '새움지마'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

강태웅 초대전, 16~31일 성옥문화재단 갤러리·갯바위 미술관

서양화가 강태웅 작가가 어린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고향 목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강 작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유달산 아래 성옥문화재단 별관 갤러리와 목포역 건너편 갯바위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미국을 오가며 꾸준히 활동해온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현실에서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단순화된 심상을 캔버스에 옮긴 작품들을 선보인다.

꾸준한 자연과의 교감과 일련의 느낌들을 화면에 옮겨온 강 작가는 '생동(生動) Movemen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더욱 응집된 에너지의 흐름을 강렬하게 표현한 근작 70여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행위가 중요한 작업 요소 중 하나다. 다양한 몸짓이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한다. 최근 작업인 'Movement' 연작은 중중구조의 화면과 반복되는 붓질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연과 외연, 음과 양의 조화, 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평론가 안희정은 "작가는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자신의 행위를 쌓아올리거나 요철(凹凸)을 자유자재로 구현함으로써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생성시킨다. 신체적 행위의 반복은 일종의 수행과정과도 닮았다. 상하좌우가 역전되거나 쌓을 이루는 작업들은 위계적인 논리를 철저하게 배제시킨다"고 말한다.

강 작가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버름스버그 대학



'Movement 2046'

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시, 봄의 제전'

비상무용단 창작무대, 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인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의 2021년 창작신작 '다시, 봄의 제전'이 무대에 오른다. 15일 오후 7시 30분, 16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

'다시, 봄의 제전'은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을 떨쳐내고 만개하는 봄을 찬양하는 창작공연이다. 무대는 작품 특성에 맞게 희망찬 봄 느낌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공간, 소품과 의상 등 디자인에도 일관된 톤을 부여하고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지난 2007년 창단한 비상무용단은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공연을 제작하는 등 광주의 현대무용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예술감독은 박종임 동산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2019년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펜로즈의 시계'로 대통령상, 최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 수준 기량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종임 예술감독은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지만 워드 코로나 시대에 춤과 예술로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빛나는 감각을 관객들과 즐겁게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며, 266석에 대해 사전예약(010-2479-7313)을 받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670-79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꿈, 어떤 맑은날' 80년 5월로

오새희·류건우·김유진·김은화... 16~17일 씨어터연바람



'젊은 예술가들의 5·18 동행'

올해 41살이 된 광주 5·18 민주화운동보다 젊은 예술인 네명이 모여 1980년 5월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푸른연극마을 단원으로 활동중인 연극인 오새희(26)·류건우(26), 무용인 김유진(29)·김은화(25)씨가 의기투합해 연극과 춤, 음악, 영상, 시 등이 어우러진 '꿈, 어떤 맑은날'을 준비한 것. 공연은 오는 16-17일 오후 5시 씨어터연바람(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아르고 청년예술가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오 씨가 대본 구성 등 총괄기획과 제작을 맡았다.

작품은 총 4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 '흔을 부르는 소리 : 낮이 깨어나다'는 현재의 광주, 평화를

고 일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배경으로 휴과 나무,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맑은 혼들이 깨어나면서 시작된다.

이어 2부 '그리움 : 꽃의 주인이 없는 곳에'에서는 평화의 꽃이 만발하기를 소망하며 심었던 씨앗이 자란 모습에 흐릿했던 과거 기억을 떠올린다. 3부 '밤과 꿈 : 기억의 소리들'에서는 치열하게 투쟁했던 10일간의 항쟁을 낮과 밤의 소리와 움직임 등을 통해 표현하며 4부 '흔을 보내는 소리 : 바람과 함께 지나가다'에서는 덩그러니 남은 신발과 옛 과거의 흔적을 비추며 바람과 함께 말없이 지나간 이들을 기린다.

문의 062-226-2446.

/전은재 기자 ejf6621@kwangju.co.kr

책들이 도서관, 20~24일 '보물찾는 도서관' 진행

책들이도서관(광주시 북구 오치동)이 20일부터 24까지 '보물찾는 도서관-일상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도서관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미션북을 뽑아 전시된 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 속 보물찾기', 단계별로 책 제목을 맞추는 '십자말풀이', 내가 만드는 보물 '우드버닝책갈피 만들기' 등이다. 또 김혜진 작가

와 함께하는 논픽션 그림책 찾기, 낭독회, 보드게임대회 등 다양한 시간이 마련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카페 '책들이도서관'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책들이도서관은 지난 2008년 (사)어린이도서관으로 설립됐으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의 062-266-7279. /전은재 기자 ejf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